

생생한 육성으로 재현한 한 독립운동가의 초상과 시대의 풍경

〈독립을 향한 집념〉(고하 송진우 선생의 일대기)과 〈거인의 숨결〉(글모음 및 관계자료집)의 출간

항일독립운동사와 해방전·후사에 관한 귀중한 사료이며, 혹심한 탄압과 감시의 일제강점기와 좌우 대립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해방공간에서 국민의 앞길을 밝힌 선각자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필독서!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 선생은 정부도 없던 일제 암흑시대에 민족의 목소리를 담던 신문을 훌로 짖어진 선구자로서 조국의 내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민족의 앞길을 열어간 독립운동가이다.

“독립(獨立)을 향한 집념(執念)”은 3·1운동을 최초로 주도하고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혹한 일제 시대에 앞장서서 2천만 조선민족을 이끌어간 국내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고, 해방 후에는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당당하게 걸으면서 통합을 통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원훈의 생애와 사상을 담았다. 고하 송진우 선생의 삶과 투쟁을 담은 정통 일대기이다. 그의 발자취에서 우리는 독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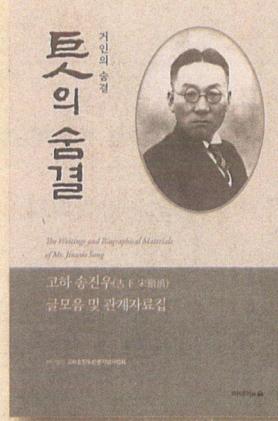
“거인(巨人)의 숨결”은 고하 송진우 선생이 직접 쓴 칼럼과 연설문과 동시대의 인사들이 고하에 관하여 기록한 글을 모아 출간한 것이다. 백 년 전에 쓴 글이 모두 시대를 움직인 명문들이고 오늘날에 읽어도 몹시 참신한 느낌을 주는 것은 고하가 10년 이상 한학을 공부한 바탕에 열심히 서양 문물을 소화한 결과이라. 시대의 고민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고하 선생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뇌, 정신 그리고 줄기찬 투쟁에 담긴 시대정신을 함께 되새길 수 있는 항일독립운동사와 해방 전·후사에 관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지금 고하 송진우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3권의 책, 하나의 정신, 민족과 자유민주, 언론과 신념의 이름 고하 송진우입니다.

〈추천의 글〉

“최근 고하 송진우 선생의 일대기를 읽으며 고하야말로 오늘과 같은 난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일제강점기에 해외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국내를 지키며 민족진영을 이끄는 중심역할을 했고, 해방국정의 혼란기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국론통합을 위해 애쓰다 타계한 분이기 때문이다. 3·1운동의 주동자요, 언론인, 교육가, 정치가로 국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터전을 닦은 위대한 지도자의 일생을 감명 깊게 읽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



독립을 향한 집념(독립을 향한 집념)

- 판형 : 152×224
- 페이지 : 내지 760
- 분야 : 역사 / 한국사 / 일대기 (인물사)
- 저자 :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출판사 : 주식회사 이아기의 숲
- 출간일 : 2023년 8월 1일
- ISBN : 979-11-89674-30-4 03990
- 정가 : 35,000원

거인(거인)의 숨결

- 판형 : 152×224
- 페이지 : 내지 1130
- 분야 : 역사
- 저자 :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출판사 : 주식회사 이아기의 숲
- 출간일 : 2023년 8월 1일
- ISBN : 979-11-89674-31-1 03990
- 정가 : 48,000원

“거인의 숨결”이 자식인 고하 송진우의 자성적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면, 〈독립을 향한 집념〉은 정치인 고하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다. 모든 곤경 속에서도 식민지 조선을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근대국가로 만들려는 집요한 정치적 향심과 그것을 허락해주는 늑여내는 일상의 유머 감각에서 정치적 인간 고하의 사회적 현신과 인간적 폭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암살당하지 않고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이었다면 21세기 한국 정치의 지형도는 지금과 크게 달랐을 거라는 아쉬움을 지울 길이 없다.”

-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소장